

정례브리핑

2020.8.12(수) 10:30, 여상기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관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 오후 2시에 한국기독교교회관을 방문하여 한국교회총연합 대표들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본 행사는 일정만 공개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차관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하계휴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 수해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하고 지원 검토하고 계신지 말씀 해주십시오.

<답변> 북한의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서 여러 곳에 호우 피해상황은 보도가 되고 있고, 특히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도가 많습시다만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피해상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주신 대북 수해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인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사안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북측의 피해상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정부도 이에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추가되는 질문인데요. 그러면 어찌됐든 북한이 지원을 요청하거나 여건이 좀 마련이 된다면 지원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답변>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부는 현재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 상황이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때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왜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측에도 수해피해가 또 더 커지다 보니 청와대 청원방 같은 데서도 '북한 지원 취소해라' 이런 청원들도 올라오고 있는 이제 약간의 비판 여론이 생기고 있어서 질문을 다시 드린 거였습니다.

<답변> 아직은 피해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어떤 규모인지 모르고 막연한 상황에서 정부가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는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상태이고 수해지원을 하겠다고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된 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북한 호우피해 상황 지금 파악된 게 없으시다면 최악인 2007년도 피해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정부 들어서 유엔의 요청을 받고 북에 지원한 사례가 혹시 있는지 추가 질문 드립니다.

<답변>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 과거 피해상황이 어땠는지.

<질문> 네, 2007년이 최악이라고 들어서 혹시 그때 상황이 지금 준하다, 라고 이상이다, 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때 피해상황이 어땠는지 하나하고요.

또 유엔의 요청을 받고 북에 지원한 사례가 이번 정부 들어서 호우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 혹시 있었는지.

<답변> 2007년도 호우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우피해에 한정해서 국제기구에, 유엔이 아니고 국제기구죠.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고 우리가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는 살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 지원 같은 거는 여러, 유럽 같은 여러 나라가 지원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홍수피해 지원은 만약에 속도가 붙게 되면 우리나라가 선두 사례가 되는 건지 이것도 하나 여쭙보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나라가...

<질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선두 사례가 되는 건지.

<답변> 북측에 지원하는 경우에.

<질문> 네.

<답변> 수해피해 지원 사례 말씀이십니까?

<질문> 네.

<답변> 이것도 지금 아직 가정을 전제로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해피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북한 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들이 통일부 사무검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공동대책위원회 포함된 인사와 단체 중에는 이번 사무검사와 무관한 인사와 단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검사가 완료가 되면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인데요. 사무검사 진행상황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무검사는 이번 주에 착수가 되었고 그리고 점차 사무검사

범위를 넓혀 나갈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분야가 사회문화 분야로 확대가 되는데요. 우리 부 소관 비영리 법인이 약 433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최근 3년간 법인 운영상황 평가결과를 토대로 109개 법인을 사무국 검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비영리 민간단체는 180개 전수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5차례에 걸쳐 사무검사와 점검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부터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단체를 대상으로 향후 점검 일정 등에 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내용 수정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금 말씀해 주신 5개로 나눠서 지금 사무검사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 5개가 어떻게 분야로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분야별로 5차에 걸쳐 있는데 그것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자료는 없고요. 그것은 아마 사무검사가 진행되면서 분야별로 물리적 또 기술적인 일정들을 감안해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그러면 북한인권 분야 이번에 25곳 하는 것은 이번 주에 다 종료가 되는 건가요?

<답변> 네? 잘 안 들렸습니다. 팬 소리 때문에 잘...

<질문> 다음 주부터는 사회문화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지금 25곳 법인 하고 있는 것은 이번 주에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답변> 순차적으로 되는지, 병행하게 되는지?

<질문> 예.

<답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어진 질문인데요. 월요일에도 유사한 질문 한번 드렸었는데 이 사무감사에 해당 단체들이 정부지원금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나 혹은 미국 NED 등 외부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을 제대로 썼는지를 확인해 보는 회계감사 영역도 포함이 되는지, 포함이 된다면 적발 이후에 특정한 고발조치라든지 조치가 있을 예정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정관 목적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사무단체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사항에 비리 여부가 있다면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리가 발견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응당한 조치가 있을 것이지만 현 단계에서 저희가 가정을 전제로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8월 12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